



맹성산악회

등산로에 심은 자연사랑의 마음



박상호 회장

“야호 야아~호” 매주 일요일 11시 30분경 맹산 정상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의 주인공들이 바로 맹성산악회 회원들이다.

“우리는 만났네 저 높은 봉우리 언제나 변함없이 탄천 흐르듯 오르리라 오르리라 삼천리 강산 ...” 맹성산악회의 주제가처럼 지난 95년 산을 좋아하는 사람 몇몇이 맹산 정상(일명 매지봉)에서 만나 시작된 것이 지금은 250여명의 회원을 가진 산악회로 성장했다.

회원들은 성남시 분당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직업과 연령은 다양하다. 자신을 “신부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박상호(56세)씨가 현재 회장을 맡아보고 있으며 64세의 안범수씨는 산행시 항상 앞장서는 등산대장이고 65세의 산악회 고문 이연호씨도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을 자랑하며 매주 산행에

개근을 하고 있다. 여성 회원은 현재 60여명 뿐으로 4시간이 걸리는 남한산성코스를 견뎌낼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면 남, 녀 불문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분당 내에 있는 몇몇 산악회 중에서도 맹성산악회는 여러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산행을 지양하고 분당 근방의 산을 즐겨 오른다는 것이다. 즐겨찾는 코스는 3가지, 모두 맹산 정상을 출발지로 한다. 맹산 북쪽으로 능선을 타 남한산성 남문까지 이르는 코스, 맹산 남쪽으로 능선을 타 태재고개를 지나 오리역에 다다르는 코스, 동쪽 능선을 타 문형산까지 오르는 코스가 그것이다.

이중 맹성산악회가 즐겨오르는 길은 남한산성코스, 원래 나무꾼들이 다녔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등산로는 길이 희미하게 나있기는 하나 갈래길이 많고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등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산악회가 직접 수차례 답사하며 새로 길을 다지고 등산로 곳곳에 흰색 리본을 달아 놓자 등산객 수가 늘어나 지금은 주말에 3~4백명의 주민들이 찾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간 잊혀졌던 산길을 복구하였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맹성산악회란 이름도 이들이 처음 만난 맹산과 남한산성에서 한 자씩 따서 만든 이름이다.

또 다른 특징은 그저 등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산로를 청소하고 곳곳에 길 안내 리본을 다는 등 끊긴 등산로를 잇고 에코브리지(Eco-Bridge:동물들이 다니도록 만든 다리)를 건설하도록 주장하는 등 환경운동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맹성산악회의 최대 현안은 끊어진 등산로를 잇는 것으로 구미동 불곡산과 남한산성 남문 사이 등 등산로 중 세군데가 도로 신설로 끊어져 등산객들은 고속주행하는 차를 피해 무단횡단을 해야 하는 처지다. 그래도 사람은 나은 편으로 산토끼, 다



람쥐 등의 산짐승들은 차가 무서워 건너지 못하거나 무리해서 건너다 비명횡사하는 일이 잦다.

그래서 지난 3월 성남시에 「생태계 보존과 등산객 안전을 위해 태재고개 등 3곳에 사람은 위로 다니고 동물은 아래로 다니는 2중 에코브리지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분당신도시의 유일한 녹지공간인 맹산 줄기를 아름답게 가꾸고 자연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며 관계기관과 환경단체들이 공조하여 분당지역의 자연생태계 조사와 연구에 적극적으로 착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분당지역은 국가시책이나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보존녹지지역 40만여평이 개발이란 미명 아래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산악회는 월 4회 주말마다 등반에 나서는데 그중 3회는 분당 주변의 검단산, 청계산 등에 올라 자연보호운동을 펼친다.

“우리 뒷동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라며 등산객들의 안내를 하며 환경보호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맹산 정상에 등나무 의자를 만들어 놓았다. 지금은 어느 정도 휴식 공간이 만들어져 있지만 처음 이들이 산에 오를 때만 해도 앓을 공간도 없어 직접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앞으로도 환경보호에 앞장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나쁜일 안하기'이다. 거꾸로 말하면 '좋은일하기', 그 일환으로 지금하고 있는 등산객들 쓰레기 줍기와 함께 매주 토요일 단천가꾸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발을 위해 환경파괴가 무차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무 한뿌리 돌맹이 하나 소중히 하는 아름다운 이들의 모임이다. ●

알 림

-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국립공원문화」에 여러분의 산악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 분량의 원고와 함께 사진을 보내주시면 정성껏 실어 드리겠습니다.

‘수필’ 과 ‘함께 가는 여행길’ 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 보낼곳

전자우편 : 천리안 NPKA 2420
하이텔 NPKA 2420

FAX : 912-4243

우 편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산 1-1 국립공원협회